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 프로젝트 점화

‘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육성 비전’ 토론회 문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방안 머리맞대

전북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포럼을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육성 비전'이란 주제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이익 측면에서는 금융은 산업의 에너지원이자, 경제의 대동맥이므로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전북 금융센터 건립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연금 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 등이 다각적으로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희준 전주대 경영 대학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전북 혁신도시가 연금 클러스터로서의 실질적인 면모와 대외적 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연금 기금의 전북혁신도시로의 유치와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

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금 특화 허브 구현을 위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연기금 운용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적 연기금 운용원칙과 철학, 소명의식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재룡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장은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 인적자원, 기반시설, 금융발전, 지명도 등 5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금융타운이 조성되면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이다"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북혁신도시시는 제3의 금융중심지를 연기금 특화 농생명산업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중심지로서 구상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성 경제분석자문관은 "공공기관의 지역혁신도시로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종결이 아닌 시작이며 계속하여 이전한 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나온 금융 전문가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8.23)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정부 정책과제로 반영하여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157억원을 들여 1만1,000평 부지를 매입했고 전북 금융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올해 12월초에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금융센터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자산운용사, 금융기관들이 집중해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연기금 특화금융산업이 육성되면 서남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산림자원메카 '고원화목원' 개장 진안군에 6년간 63억원 투자 조성

진안고원 청정산림지역에 고원식물을 테마로한 '청정고원 숲속의 행복동산' 화목원이 개장됐다.

전북도는 13일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산림환경연구소 일원에 11만 8000㎡ 규모로 신규 조성된 고원화목원 잔디광장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재현 산림청장,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이항로 진안군수와 지역주민, 임업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을 가졌다. 고원화목원은 2012년부터 6년간 국·도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표본수원, 습지원, 꽃향기원, 고산원, 한국전통정원, 아열대식물원 등 23개 전문원과 정자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화목원내에는 고원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구름국화, 한라구절초, 구상나무 등 850종 61만여 본의 식물을 보존하고 있다. 도 신현승 환경복지국장은 "고원화목원이 산림식물자원의 보전과 동부권 산악지역의 새로운 산림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제근상을 수상한 부사관들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는 故 연제근 상사의 위국·헌신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7회 제근상' 수상식을 지난 13일 개최했다. 사진은 제근상 수상자들의 모습이다. <사진=육군부사관학교 제공>

빅데이터 활용 전북미래 5개년 청사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최근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 및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여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1단계로 '빅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

성(2018~2019년)', 2단계 '활성화단계(2020~2021년)', 3단계 '도약단계(2022년)' 등이다. 또한 중점추진전략으로 문제해결형, 예측대응형, 의제발굴형별 과제를 도출하고 전북도 성장 동력을 연계한 일자리 추천서비스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유형별 핵심과제는 일자리 추천서비스, 빅데이터 큐레이션 인력양성, 빅데이터 및 IOT 기반 새만금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노인행위로그 기반의 노인 및 독거인 케어사업, 전북문화관광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전북 빅데이터 농생명지도 및 차세대 스마트팜구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된 핵심과제는 관계부서 및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앙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정읍·완주 신규 농공단지 개발 본궤도

전북도 수요검증 통과 내년부터 부지조성 착수

전북도는 2017년 신규 농공단지인 정읍 철도농공단지과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마무리하고 '신규 농공단지 지정이 적절하다'라는 수요검증 결과를 정읍시와 완주군에 통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수요검증은 지난 해 12월에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검증 절차가 강화되어 최초로 실시한 절차이다.

수요검증은 도,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전문 용역업체의 산업단지 전문가 7명

으로 하는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관련법 저촉 여부, 분양 가능성,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다.

수요검증 결과, 2개 농공단지가 모두 입주수요를 100% 이상 확보하여 분양 가능성이 높고 관련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 등 입지 여건도 좋아 신규 농공단지 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 철도농공단지과 완주 철도농공단지는 정읍시 일일면 노령역과 연계하여 2019년까지 시비 210억 원을 투자, 22만9천㎡의 철도차량 전산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용지보상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11월까지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 늦어도 12월 중에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완주 농공단지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 454억 원을 투자, 완주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 전주지역 탄소산업을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31만6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1월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늦어도 올 해 12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농공단지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는 용지보상과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정읍 철도농공단지과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완주 397, 정읍 300)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412억 원(완주 883, 정읍 529)의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소식지 '전북의회 21 가을호' 발간

전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위원장 허남주)는 13일 의회소식지 '전북의회21 가을호(제6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을호는 지난 7~9월까지 3개월간 긴급현안, 5분 자유발언, 현장의정활동, 2017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소방전문 병원 건립, 군산지역경제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러시아 유조선 건조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배정 촉구 결의안을 수록했다.

허남주 간행물편집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의회소식지는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감시 견제하는 내용을 수록해 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인터넷 또는 전화로 구독 신청시 무료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